



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7월 ~ 8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대만, 패류, 위생, 수입, 증명, 식품, 위생복지부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 주요 키워드 :

대만, 패류, 위생, 수입, 증명, 식품, 위생복지부 등



##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 위생복지부, 수입산 패류 검사 시 수출국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 위생복지부, 수입산 패류 검사 시 수출국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가 수입산 패류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및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법>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터 수입산 패류 검사 시 위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은 패류 수입업체 및 공인인증협회를 대상으로 이후 패류 수입 시 수확지 또는 양식지 위생 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국 공식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만약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품 수입검사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만 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식품 안전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히 패류에 관해서는 패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마비성 패독 및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해양 독성 미생물 오염을 경계하고 있어, 패류 수입 시 제품의 위생 환경을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있다.

대만 위생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만의 패류(가리비, 전복, 생굴, 홍합 등) 수입 규모는 전체 약 8,496톤으로,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필리핀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은 365,067kg으로 6위를 차지했다. 최근 3개년 對대만 한국산 통관거부사례 통계 확인 결과, 패류로 인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 2012년 대만 식당에서 한국산 패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탓에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있어 현재 대만 사회 내 한국산 패류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대만 위생복지부가 2018년부터 수입산 패류 검사 시 수출국에 대해 위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만 식품 안전 강화 정책이 점점 더 견고해 지고 있다. 대만의 이같은 수입산 패류 식품 안전 강화는 특히나 한국 업체에 있어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2년 대만 식당의 비위생적 관리로 발생한 한국산 패류 식중독 파문으로 인해 한국산 패류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 패류의 경우, 다른 품목과 달리 성분 기준치 부합 여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보다 외부 환경에 의한 변질, 부패의 우려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수출 전 기업 자체적인 철저한 위생 관리와 이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산 패류 검사 시 수출국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세부 내용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316951>

1. 強化輸臺貝類食品安全，將實施產品輸入檢附官方證明措施，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2017.08.02
2. 台湾地区加强对韩国输台贝类产品管理，中国质量新闻网，2016.03.08